

녹색갈증, 국립공원 생태관광으로 풀자



송인순(宋寅淳)

국립공원관리공단 팀방관리이사

환경과 경제, 보전과 이용은 창조적 실용주의 관점에서 상생(相生)의 관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연환경의 보전 정도는 세계적으로 국가의 부(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현명한 이용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개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의 핵심지역으로 연간 3천5백만명에 이르는 탐방객이 찾고 있다. 각종 오염에 시달리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녹색갈증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는 욕구가 증가할수록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정상정복형 탐방 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는 자연자원 훼손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수 밖에 없으며, 자연자원의 훼손을 예방하고 이를 온전히 보전해 나가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의 제1차적 목적이기도 하다.

기존의 위락이나 정상정복형 등산 중심의 탐방행태를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탐방문화로 전환하여 자연보전과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는 물론 역사·문화 자원을 배우고 즐김으로써 도시생활에서 오는 녹색갈증을 해소할 대안이 바로『국립공원 생태관광』인 것이다.

신 국가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발점으로서 도시인들의 녹색갈증 해소와 더불어 대부분의 국

립공원이 위치한 산간오지에서의 소비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찰, 지역 문화, 유적지 등과 연계하여 생태관광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지난해에는 13개 국립공원에서 15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44회 시범 운영한 결과 865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300여명의 전문 인력인 자연환경안내원의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정신은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국립공원 생태관광의 방향을 가늠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국립공원 생태관광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올해에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5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5천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연생태는 물론 불교문화·선비문화 체험, 아토피 환자 자연치유, 우리 국악 알리기 프로그램 등 참여자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립공원을 생태관광의 메카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순백의 눈과 함께하는 덕유산국립공원의 ‘통나무집과 함께하는 오감만족’(2.17~18), 소백산국립공원의 ‘아고산대 눈꽃트래킹/선비문화체험’(2.21~22)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110명이 참가하였다.

봄이 시작되는 3월에는 꽃 내음과 함께하는 14개 프로그램을 10개 공원에서 18회 운영하여 1,000여명에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는 물론 역사·문화 자원을 배우고 즐김으로써 도시생활에서 오는 녹색갈증을 해소할 대안이 바로『국립공원 생태관광』인 것이다.

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인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2월 5일 철도여행 전문기업인 코레일 투어서비스와 「코레일-국립공원 생태체험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마케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9 내나라여행박람회(2.19~2.22)에 참가하여 국립공원 생태관광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생태관광을 알리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다.

향후에는 국립공원 내 대표적 문화자원인 사찰의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조계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다.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온전히 보전하고 국민에 대한 여가 서비스 확대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동력인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

2009내나라여행박람회 국립공원 생태관광 체험관(좌)
소백산국립공원 죽령 옛길 선비문화 체험(우)

2009 국립공원 생태관광 주요 프로그램

자연생태

- 산양의 놀이터 설악산·속초 체험
(야생동물 흔적 찾아보기, 자연에서 생활하는 방법, 속초의 전통문화 체험)
- 덕유산 통나무집과 함께하는 오감 만족
(5가지 감각을 일깨우는 체험과 즐거움)

문화

- 지리산 선인들의 발자취 따라 100리길
(재래시장과 삼성궁 등 역사와 전통문화 체험)
- 소백산, 죽령 옛 고개마을을 가다
(선현들의 생활 체험)

웰빙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아토피 과학캠프
(아토피 환자의 자연치유 임상 체험)
- 조랑말타고 속리산과 친구 되기
(말을 타고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독특한 체험)

외국인

- 가야산 역사문화 100배 즐기기
(불교 수련, 다도체험 등 불교문화 체험)
- experiencing Korean nature, culture, and history
(오색약수 맛도 보고, 전통 문화도 체험)

